

# 산유국

## 이란의 연구 ③

- 한국외국어대학 중동문제연구소 -

이 자료는 최근 외국어대 중동문제연구소가 펴낸 「국가연구 : 이란」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 제Ⅲ 장 이란의 경제

#### 1. 경제개황

一名 「페르시아」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는 이란의 총 국토면적은 165萬km<sup>2</sup>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7배가 넘는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전국토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는 1986년 현재 4,800만명이고, 1km<sup>2</sup>당 인구밀도는 29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밀도와 비교해보면 15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란은 북위 25도에서 40도에 걸쳐 넓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이나 기후등 여러면에서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란의 기후는 한마디로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춥고 습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부와 산악지대의 기온은 겨울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반면, 서남부지방의 여름 기온은 45도까지 상승하는등 지역과 계절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우량도 전체평균으로는 부족한 편이나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쪽의 카스피해 연안지방과 Alburz 산맥지역은 연평균 1,000~1,200mm의 강우량을 가진 삼림과 자연목장지대인 반면 중앙고원은 대부분 사막지대이며 Esfahan, Khorasan, Qazvin, Varamin 평원같은 수자원이 풍부한 비옥한 지역도 있다.

1980년대의 이란경제는 경제외적 요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78/79년 회교혁명에 따른 변혁과 혼란, 1980년 對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막대한 戰費지출, 국제원가의 등락등 일련의 사태로 이란경제는 근본적으로 크게 왜곡, 침체되었다.

1970년 후반의 회교혁명은 1970년대 高油價시대의 경제운용실패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혁명으로 또 다른 혼란과 경기침체가 야기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회교사회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이슬람혁명정부는 서구문명을 단순히 모방하는 형태의 현대화를 거부하고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회교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정부역할의 극소화를 주장하는 많은 보수무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크게 증대되었다.

모든 은행과 대규모공장과 무역업무가 국유화되고 토지개혁을 통해 대지주로부터 貧農으로의 토지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주와 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그룹과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前時代에 추진되던 많은 개발사업들이 연기 또는 중단되었다. 또한 구시대의 상관습과 경제운용방식 대신 이슬람 원칙에 따른 경제운용방식이 소개, 실시되었으나, 실제 경제운용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정치적, 종교적 요소가 더 많이 고려되었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되었다. 이런 요인들이 혁명에 필히 수반되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對이라크 전쟁으로 혁명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던 이란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모든 가용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는 비상전시체제로 전환하였고, 물적·인적피해와 막대한 전비지출로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구조나 자원분배는 크게 왜곡되어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下에 경제운용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슬람혁명과 對이라크전쟁으로 석유생산이 감소되고, 1983년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석유收入은 1982년과 1983년의 192억달러를 피크로 하여 1986년 66억달러까지 감소하였다. 石油收入이 정부 총세입의 60%, 총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石油收入의 감소는 경제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197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20% 이상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이란경제는 1978/79년 이후 회교혁명과 對이라크전쟁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1982년/83년에는 석유생산 및 수출의

증대로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는 對이라크 전쟁의 가열로 인한 石油收入의 감소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다가 1986년에는 세계적인 유가폭락과 석유생산시설에 대한 이라크의 집중폭격으로인해 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7/88년에는 유가회복과 증산으로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생산시설 파괴와 石油收入의 감소로 국내 총생산에서 石油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진 非石油부문, 특히 농업과 공업의 생산능력과 생산성이 전쟁피해와 투자와 기술인력부족으로 크게 하락하여 이란경제는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연간 30~50%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1980년 이후 계속 누적되어온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적자, 4%에 가까운 인구증가율과 인구의 도시집중, 300萬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200萬명에 가까운 주변국가로 부터의 피난민문제등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란은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石油와 가스 이외에도 철, 동, 석탄, 아연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풍부한 숙련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이고 1988년 對이라크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이란경제는 곧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 전쟁피해가 엄청나고 이러한 난제들 때문에 8년간의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경제를 재건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2. 經濟構造 및 산업별 발전상황

이란은 국토의 60%가 산악지대와 불모의 사막이고,

〈표-1〉 이란의 경제성장률

(단위 : %)

|               | 1978/79 | 1979/80 | 1980/81 | 1981/82 | 1982/83 | 1983/84 | 1984/85 | 1985/86 | 1986/87 |
|---------------|---------|---------|---------|---------|---------|---------|---------|---------|---------|
| 농업            | 1.6     | 7.2     | 1.9     | 11.3    | 7.9     | -1.6    | 4.8     | ...     | ...     |
| 석유와 가스        | -27.4   | -23.8   | -56.9   | -17.2   | 92.5    | 0.8     | -14.8   | ...     | ...     |
| 광공업           | -15.2   | -9.2    | 1.6     | 2.7     | 10.5    | 15.6    | 3.2     | ...     | ...     |
| 서비스           | -5.1    | 4.8     | -5.5    | 1.9     | 2.8     | 18.6    | 2.1     | ...     | ...     |
| GDP<br>(요소가격) | -14.5   | -4.0    | -16.3   | 2.7     | 15.2    | 12.4    | 0.1     | -1.5    | -8.0    |

〈資料〉 Central Bank of Iran

겨우 12%만이 경작지라는 불리한 자연환경속에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전근대적인 생산방식에 따라 농업과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여 왔으며, 또한 20세기 초반부터 석유산업이 발전하였다고는 하나 공업도 카페트 직조등 전통적 수공업에 머물렀다. 그러나 팔레비 왕조가 1925년 건립된 후 국토중단철도건설과 도로망 정비등으로부터 시작된 이란의 근대화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이고도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 결과, 회교혁명전까지만 해도 中東산유국중에서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이란은 석유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는 하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같은 석유일변도의 국가와는 달리 국내총생산에서 접하는 석유산업의 비중이 20~30%로서 그 비중이 비교적 낮고 비석유산업 즉, 농업과 공업부문의 발전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해 균형있는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 이후 회교혁명, 對이라크전쟁, 유가등락등 일련의 사태로 균형있는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이란경제는 크게 왜곡, 침체되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특히 1973년 이전의 경제구조변화는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추진의 결과였고 그 이후의 변화는 주로

외부요인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접하는 농업비중의 변화가 이러한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1960년대로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던 농업은 회교혁명 당시 9%까지 감소하였다가 1986/87년 다시 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급변현상은 전쟁, 석유생산증감과 유가등락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비중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한 결과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비중은 1973/74년 석유위기당시 50%를 피크로해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石油부문은 이란경제에서 아직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의 분명한 경제정책 목표는 이란경제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권말기에는 그 초기보다 이란경제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고, 혁명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 정부의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경제는 아직도 석유라는 단일생산품에 의존하는 mono-product economy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농업

〈표-2〉 이란의 GDP구성

(단위 : %)

|                      | 농업   | 석유와 가스 | 광공업  | 서비스  | GDP(요소가격) |
|----------------------|------|--------|------|------|-----------|
| 1963/64 <sup>a</sup> | 25.8 | 21.2   | 17.7 | 35.3 | 100.0     |
| 1967/68 <sup>a</sup> | 21.5 | 24.7   | 20.1 | 33.7 | 100.0     |
| 1968/69 <sup>b</sup> | 22.0 | 17.0   | 22.0 | 39.0 | 100.0     |
| 1972/73 <sup>b</sup> | 15.7 | 19.1   | 22.8 | 42.4 | 100.0     |
| 1973/74 <sup>c</sup> | 10.0 | 50.5   | 13.5 | 26.0 | 100.0     |
| 1977/78 <sup>c</sup> | 9.4  | 35.8   | 19.1 | 35.7 | 100.0     |
| 1980/81 <sup>c</sup> | 14.1 | 12.9   | 20.2 | 52.8 | 100.0     |
| 1981/82 <sup>c</sup> | 15.3 | 10.4   | 20.2 | 54.1 | 100.0     |
| 1982/83 <sup>c</sup> | 14.3 | 17.3   | 19.4 | 49.0 | 100.0     |
| 1983/84 <sup>c</sup> | 12.6 | 15.5   | 20.0 | 51.9 | 100.0     |
| 1984/85 <sup>c</sup> | 13.1 | 13.2   | 20.6 | 53.1 | 100.0     |
| 1986/87 <sup>d</sup> | 21.0 | 8.0    | 23.0 | 48.0 | 100.0     |

〈註〉 a : 1960/61년 불변가격 기준 b : 1967/68년 불변가격 기준

c : 1974/75년 불변가격 기준 d : 추정치

〈資料〉 Central Bank of Iran & Eiu Special Report No. 1083

이란의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구성이나 고용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나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2>는 1960년대초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던 농업의 비중이 계속 감소함을 보여준다. 1973/74년과 1977/78년과 1986/87년 油價의 급격한 등락에 의한 異常현상을 제외하면 1980년대를 통하여 농업은 국내총생산에 12~15%의 기여를 하고 있다. <표-3>은 고용면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하나, 농업은 아직도 총노동인구의 30%를 고용하고 있는 주요부문을 보여주고 있다.

<표-3> 이란의 고용구조

(단위 : 千名)

|                | 1976  | 1982/83 | 1987/88 |
|----------------|-------|---------|---------|
| 농업             | 2,992 | 3,160   | 3,599   |
| 광공업, 건설, 공공서비스 | 3,012 | 2,928   | 4,192   |
| 서비스            | 2,795 | 3,309   | 3,968   |
| 취업자            | 8,799 | 9,397   | 11,759  |
| 실업자            | 997   | 2,229   | 1,487   |
| 경제활동인구         | 9,796 | 11,626  | 13,246  |

<資料> 1976년 인구센서스와 Plan and Budget Organization

이란에는 기후와 토양여건에 따라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며, 밀, 보리, 쌀등의 곡물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식량자급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곡물생산에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몇년전만해도 연간 600萬톤 정도 생산되던 밀이 1986/87년에는 750萬톤으로 증산되었으나, 급증하는 국내수요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쌀은 주로 Gilan과 Mazandaran 지방에서 생산되며, 연평균생산량은 약 100萬톤 수준이다. 1982년이후 보리와 목초생산이 크게 늘었으나, 면화는 생산이 감소되어 연간 35萬톤 정도가 생산된다. 이외에도 사탕무, 차, 알몬드,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담배가 많이 재배되어 올리브와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가 생산된다.

사시대에 막대한 투자와 관심이 농업발전에 쏟아졌고, 회교혁명이후에도 농업부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표-4>는 이란의 농업생산이 부진하고 특히

1983년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농업이 부진함에 따라 1960년대에는 식량자급이 가능했던 이란은 식량수입이 계속 증가되어 1984년에는 36억7천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수입하게 되었다. 1985년에 와서 정부의 강력한 수입규제 때문에 약간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식량수입의 증가는 계속적인 석유收入의 감소와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이란으로서는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표-4> 농업생산지수

(1979-81=100)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지수     | 95.72 | 110.00 | 113.32 | 110.52 | 109.89 | 107.33 |
| 증가율(%) | 1.5   | 14.9   | 3.0    | -2.5   | -0.1   | -2.7   |

<資料> FAO, Production Yearbook.

이러한 농업정체의 원인은 기후, 풍토등 자연조건에 의한 제약요인과 토지소유권의 미해결, 농업투자와 노동력의 부족, 국경시대농촌의 황폐화등 인위적인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간 강우량을 보면, 1,000mm를 넘는 지역은 카스피해 연안지방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작지는 주로 Qanat라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관개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양수기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도 크게 늘었으나, 아직도 전국토의 3.3%인 550萬ha만이 관개가 가능하다.

회교혁명과 전쟁의 피해는 농업부문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회교혁명후 시행된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미해결로 농업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사 몰락이후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토지의 대량매입이 크게 성행하여 이농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혁명 첫해에 약 150萬명이 테헤란으로 이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토지소유상한선을 해당지역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의 3배로 규정하는 토지개혁안을 1979년 혁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지주들과 회교성직자들은 이러한 제한조치는 敵의 땅, 황무지, 미경작지만이 몰수될 수 있다는 회교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혁명의 목

표와 회교원칙사이에서 하나의 타협과 조화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거의 8년이상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對이라크전쟁으로 이란농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국경지대의 농촌이 황폐되고(1980년과 82년사이 농지의 10%가 이라크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과대한 戰費지출에 따른 농업투자감소로 씨앗, 비료, 농약등 투입물이 절대부족하고 노동력 또한 크게 부족하여 이란농업은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력과 투자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농업기술 지원과 농촌개발사업은 주로 1983년말에 결성된, Jihad-i-Sazandi라고 불리는 재건봉사대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 재건대는 주로 애국심이 강한 젊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나, 기술지원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대민관계가 매끄럽지 못하여 이란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크게 공헌을 하지 못했다.

농업부문의 재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욕적인 농업투자자와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농업생산과 생산성의 팽목할만한 급성장은 단기간내에는 성취될 것 같지 않다.

이란의 목축업은 주로 유목민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양과 염소의 40%가 유목민에 의해 사육되고 있음). 1960년대 이래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많은 유목민들이 정착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정부는 육류생산 증가를 위해 이들 유목민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란국토의 11.5%가 삼림지대이며 주로 카스피해연안과 Zagros산맥지대에 퍼져 있다. 1963년 삼림의 국유화조치 이래 산림보호, 관리, 재조림이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으며 1980년 640萬㎡의 원목이 생산되었다.

이란은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어 어업발전에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어업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획량은 1984년 16,000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카스피해에서는 연간 200톤 이상의 캐비어가 주로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카스피해의 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공해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스피해의 어획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페르시아만이 새우류 수출로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어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페르시아만의 어업발전을 위한 13억달러 규모

의 어업개발 5개년계획이 1982년말 수립되었고, 그 첫 단계로 호르무즈해협의 Javadal A'emeh에 300萬달러를 들여 새로운 어항을 1986년 6월에 건설하였다.

## (2) 광업

이란의 광물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탐사작업이 최근 종결될바, 이란에는 막대한 양의 石油와 가스이외에도 다양하고도 풍부한 양의 지하자원이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주로 Isfahan근교의 Nakhlak에서 생산되며 최근에 Bafq, Khomein, Ravanj에서 일산 600톤규모의 납, 아연광맥이 발견됨에 따라 Zanjan에 제련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철광석은 주로 이란 남동부의 Kerman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며 특히 약 6억톤의 매장량을 가진 Bafq철광이 유명하다. 또한 최근에 약 4억톤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Chadormelo철광이 발견되었다. Bafq에서 캐낸 철광석은 특수철도를 통해 540km나 떨어진 Isfahan 제철소로 수송되어진다.

이란에는 약 60억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이중 3분의 1 정도가 개발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탄광은 Kerman지역일대와 Mazandaran지역, Semnan, Tabas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석탄생산은 이슬람혁명이후 계속 증가되었으나(1985년 130萬톤) 여전히 국내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연간 약 40萬톤의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는 주로 Azerbaizhan, Kerman, Yazd와 Anarak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1967년 이후 특히 Kerman지

〈표-5〉 이란의 광물생산 추이

(단위 : 천톤)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알 루 미 늄 | 45   | 39   | 42   | 43   | 43   |
| 크 롬     | 30   | 30   | 30   | 30   | 30   |
| 동       | 43   | 58   | 43   | 50   | 48   |
| 납       | 25   | 18   | 20   | 22   | 22   |
| 망 간     | 20   | 20   | 20   | 20   | 20   |
| 몰 리 브 덴 | -    | 0.5  | 0.5  | 0.5  | 0.5  |
| 아 연     | 40   | 39   | 47   | 50   | 36   |

〈資料〉 World Metal Statistics Year book

역에서 여러개의 거대한 광맥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매장량이 8억톤이 넘는 양질의(구리함유량 1.12%) Sarcheshmeh 광산이 대표적이며, 이 광산의 개발을 위해 Bandar Abbas까지 400km의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학교와 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 1982년에는 동제련소가 완공되어 1986/87년에 5만톤의 구리가 생산되었다. 또한 이 제련소에서는 1983년 6월부터 양질의 몰리브덴도 생산되고 있다.

이란의 인산염의 매장량은 1986년 2억2천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매년 약 110萬톤(약 3억달러상당)의 인산비료를 수입하고 있다. 1976년 이란의 북서부에서 우라늄이 처음 발견되었고, 1984년 중부이란의 Saghand 지방에서 5,000톤 규모의 우라늄광이 발견되었다. 우라늄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건립과 원자력 개발계획이 막대한 투자, 서구기술에의 의존도 심화, 값싸고 풍부한 천연가스의 부존등이 이유 때문에 한때 중단된 적도 있었으나 최근 원자핵기술의 도입이 발표됨에 따라 우라늄생산은 증가될 전망이다.

Elburz산맥과 Bandar Abbas부근에서 생산되는 크롬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산출되는 벵갈라(Red Oxide)와 Nishapur에서 생산되는 터키석은 전량 수출되고 있다. 또한 페르시아만의 해안일대와 Bandar Abbas근처에서 황과 소금이 생산되며, 이란은 中東 최대의 황수출국이다(1985/86년 105,000톤 수출). 110만톤의 스트론튬 매장량을 가진 이란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두번째가는 스트론튬 수출국이다. 이란의 광물수출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출액도 1985/86년 7천만달러에서 1986/87년 8,500만달러로 증가되었다.

### (3) 공업

이란에서 근대적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Reza Shah의 영도하에 식품가공, 섬유의 생산에 착수한 1930년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란은 민간자본축적이 빈약하고 금융기관의 발달도 미비하던 때라 대부분의 근대공업은 국가가 설립,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1950년대 중반에 화학비료, 설탕정제, 시멘트 섬유등 현대적 의미의 공업이 세워지긴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과 1951년 석유국유화분쟁으로 이란의 공업화는 1950년대 후반까지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다.

1960년대의 이란공업은 소비재부문의 수입대체를 통하

여 주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말 공업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외자의 도입이 허용되고, 신설된 이란광공업은행에 양적 신용확대로 민간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외경쟁으로부터의 보호, 공공부문신용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등으로 민간부문의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섬유 및 의류, 종이, 자동차 및 타이어, 식품가공, 페인트, 세제등 소비재공업의 생산능력이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정부의 수입대체전략은 전후방영관효과를 통하여 중간재 및 자본재공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8~73)에서는 정부부문의 기간산업육성과 민간부문의 수입대체산업의 다양화에 공업정책의 중점이 두어졌으며, 그 결과 제철, 알루미늄, 석유화학 및 비료, 시멘트, 산업機器, 조선, 트랙터, 통신機器와 같은 비교적 자본집약적인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업화에 동구와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Igat line을 통한 對소련 가스수출의 댓가로 소련의 차관과 기술로 세워진 아리아메르제철공장, 이라크産業機器工場등이며, 이외에도 아크라알미늄공장, 타브리트트랙터공장, 부쉐르조선소등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던 이란공업은 人的·物的투입이 부족했던 1970년대 후반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78/79년의 파업과 정세불안, 혁명직후의 자본과 자본가의 해외도피, 1979년 여름 대규모공업의 국유화등으로 이란 공업은 침체되었다. 더구나 1980/81년 Abadan, Ahwaz와 Bandar Khomeini에 대한 이라크의 집중폭격으로 이 지역의 석유화학, 철강등 주요 공업단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1982년 이후 전쟁으로 자연보호를 받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민간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재건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어 1983/84년 회미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던 이란공업은 1985년 이후 다시 침체되었다. 1979/80년 전년에 비해 무려 34%나 감소했던 공업생산은 198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1980년대를 통하여 민간기업은 이란의 총공업생산의 20~3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공업의 평균가동률을 20%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국영공업청

〈표-6〉 대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지수

(1982/83 = 100)

|                      | 1980/81 | 1981/82 | 1982/83 | 1983/84 | 1984/85 |
|----------------------|---------|---------|---------|---------|---------|
| 식품, 음료, 담배           | 95.1    | 95.4    | 100.0   | 110.8   | 116.2   |
| 섬유와 가죽               | 76.3    | 93.3    | 100.0   | 115.7   | 120.3   |
| 목재와 목제품              | 63.9    | 75.8    | 100.0   | 107.0   | 116.4   |
| 종이                   | 64.3    | 74.3    | 100.0   | 116.4   | 131.7   |
| 화학제품                 | 80.0    | 84.9    | 100.0   | 122.6   | 133.9   |
| 비금속제품<br>(석유와 석탄 제외) | 77.3    | 86.6    | 100.0   | 108.3   | 114.7   |
| 1차 금속                | 69.5    | 61.5    | 100.0   | 145.0   | 164.6   |
| 금속기계와 정비             | 70.2    | 88.9    | 100.0   | 136.4   | 151.4   |
| 일반지수                 | 77.3    | 87.5    | 100.0   | 121.8   | 131.4   |

〈資料〉 Central Bank of Iran

(National Iranian Industries Organization)은 혁명 이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1983/84년의 공업부문성장률이 23%에 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재는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업부문의 비중도 1980년에도 1960년대 후반의 2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공업성장이 부진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란공업이 부진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전쟁에 의한 파괴, 전쟁수행에 따른 투자와 노동력부족, 원자재등 투입물의 부족, 전기와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악화, 정부의 의욕적이고도 일관성있는 정책의不在등을 들 수 있다.

〈철강공업〉

이란이 IGAT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천연가스를 소련에 수출하는 댓가로 소련이 제공하는 차관과 기술원조로 건설된 이스파한 근교의 연간 생산능력 70만톤 규모의 아리아메르 제철공장이 197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원래는 1988년까지 190만톤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1982/1983년 66만8천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이스파한 근교의 무바라크에 연간 생산능력 250만톤 규모의 제철소가 1989년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생산능력 250만톤 규모의 아흐와즈 제철소의 건설도 이라크의 폭격으로 중단되었으나, 공사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회교 혁명정부의 목표는 철강

의 자급이었다. 철강소비는 1981년 600만톤에서 1983년 천만톤으로 증가되었으나, 국내 철강생산은 회교혁명과 대 이라크전쟁으로 국내소비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가 풍부히 매장되어 있어 철강공업 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단시일내에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철강수입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시멘트공업〉

이란은 1970년대 이후 건설붐을 맞아 건축자재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시멘트는 1973/74년 340만톤이 생산되었으나, 국내수요에는 못미쳐 33만톤을 수입하였다. 1974년 130만톤 규모의 Abyek시멘트공장이 완공되어 이란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550만톤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1,300만톤으로 증가되었다. 여러개의 새로운 시멘트공장이 건설중인데 이 공장들이 완공되면 이란은 연간 1,7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1987/88년부터는 매년 백만톤 정도를 수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업〉

국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M, Benz등 서구의 유명회사나 日本회사들과의 합작으로 승용차, Van, Bus, 트럭등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란의 주요공업으로 기계공구류, 건축자재,

제약, 섬유, 식품가공등을 들 수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란의 카페트 직조등 전통적 가내수공업이다. 카페트생산은 회교혁명 초기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곧 혁명전의 생산 수준을 되찾았다. Qom, Nain, Esfahan등지에서 생산되는 고급 실크 카페트는 값이 비싸고 Kerman, Kashan, Tabriz등지에서 생산되는 모직 카페트도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란의 카페트 수출은 1980/81년 4억2,500만달러에서 1984/85년 9,000만달러로 격감되었으나, 앞으로 카페트 생산과 수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속제품, 세라믹, 보석가공등의 가내 수공업은 이란의 유흥노동력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石油와 가스

#### 〈석유산업의 개황〉

석유산업은 과거에도 이란경제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여 왔지만, 특히 1973년 이후에는 유가 폭등과 생산증가로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세입과 외화수입의 원천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다. 국내 총생산에서 접하는 석유산업의 비중은 1960년대와 1970년대초 20% 수준에서 1973/74년 석유파동 이후 50.5%까지 증대되었고, 그 이후 감소추세이긴 하나 상당히 높은 GDP점유율을 유지하였다. 對이라크 전쟁이후 유가하락과 생산 감소로 그 중요성이 줄어든 듯 하나 여전히 이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1988년 이라크와의 휴전이 성립됨에 따라 파괴된 유전이 복구되면 그 중요성은 배가 될 것이다.

#### 〈石油 매장량과 주요 유전〉

이란의 石油매장량은 막대한 양의 생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 1975년 660억배럴로 추정되던 석유매장량은 1987년말 929억배럴로 증가되어 전세계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이 종식되어 석유 탐사작업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면 확인매장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유전으로는 Aga Tari, Karani, Marun, Paris, Gachsaran, Bibi Hakimeh, Ahawaz등

이 있으며 최근에는 Darius유전이 Dorood유전으로 바뀌는등 유전이름의 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란을 비롯한 中東의 유전은 대개 매장량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1油井當 산유량도 대단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Cach Saran 제3호 유전은 직경 30cm파이프 하나에서 일산 10만배럴이 자연 분출되는 세계 최대의 유정이다.

#### 〈石油의 개발〉

이란의 석유개발은 페르시아국왕으로부터 1901년에 석유채굴권을 획득한 英國人 William K. D'Arey가 1908년 이란 남부에서 유전을 발견한데서 비롯되었으나, 본격적인 석유채굴은 1913년에 시작되었다. 1951년 석유산업이 국유화되기전까지는 영국자본인 Anglo-Persian Oil Company(현재의 BP)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1954년 콘소시엄 협정이 체결되어 형식적으로는 석유국유화 분쟁의 과정에서 설립된 이란국영석유회사(NIOC)에 의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英國, 美國, 프랑스, 네덜란드의 8대 국제 석유자본이 예전의 Anglo-Persian Oil Company의 지위를 계승하여 생산, 정제, 수출을 담당하였다. 이 협정은 25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었으나 1973년 신헌정에 의하여 NIOC가 실질적인 조업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NIOC가 석유생산과 정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장악하게 되어 콘소시엄은 기술자문관이나 하청업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고, 1979년 3월 1일 NIOC의 선언에 의해 콘소시엄의 활동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서구의 석유회사와 합작투자 방식과 개발 청부방식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여 걸프만의 대륙붕 및 내륙지방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 〈石油 생산〉

1913년 채굴초기의 일산 5,000배럴 수준에서 石油 국유화 전년인 1950년 일산 66만4천배럴까지 생산이 증가되었으나, 1951년 석유국유화분쟁 이후 7,000배럴까지 감소하였다. 1954년 콘소시엄 협정이 체결된 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3년 600만배럴선을 넘게 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산유국으로 등장하였다. 1979년 혁명이후 이란 정부는 300만b/d 이하로 생산을 감축하였고, 1980년 대이라크전쟁으로 주요 산유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생산은 격감되어 OPEC의 쿼터



〈표-7〉 이란의 원유생산추이

|       |       |       |       |       |       |       |       |       |       |       |       |
|-------|-------|-------|-------|-------|-------|-------|-------|-------|-------|-------|-------|
|       | 1965  | 1970  | 1975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 생 산 량 | 1,908 | 3,829 | 5,350 | 1,467 | 1,316 | 2,391 | 2,442 | 2,032 | 2,192 | 1,871 | 2,272 |

〈資料〉 Petroleum Economist

한도인 240만b/d에도 못미치고 있다. 1987년 세계의 원유생산량중 이란의 비중이 3.9%로 이를 세계 원유 매장량중 이란의 비중(세계의 10.4%)과 비교해 보면 생산비율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석유수출과 석유收入〉

1970년대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세계 제 2의 석유수출국이었다. 국내소비는 총생산량의 6%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4%가 수출되었다. 그러나 1979년 회교혁명이후 수출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1981년 80만b/d이 수출되었고, 1982년 이후 약간 회복되어서 160만~170만b/d로 증가되었으나, 1986년에는 Kharg 섬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격감되었다. 이러한 계속적인 유가하락과 수출량 감소로 정부의 석유收入도 계속 감소하였다. 1977년 212억달러에서 1986년 66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런 감소추세는 유가가 상승되고 수출량도 늘어난 1987년에 와서 중단되었다. 1988년에는 석유收入이 117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987/88 회계년도에는 정부 세입의 26%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1980년 이후 전쟁과피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어 국내공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석유제품 수출량에서 석유제품의 수입을 뺀 순수출은 〈표-8〉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란의 원유생산비는 여타 중동 경쟁산유국에 비해 비교적 높았고 대이라크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운송비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되어 이란의 석유수출은 여타 중동산유국보다 경쟁력이 약했다. 따라서 실제 석유收入은 공식가격으로 계산된 액수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석유 정제〉

이란 정유공업의 역사는 40년 가까이 되며 모든 수출용 원유는 주로 아바단정유공장에서 정제된 후 수출되었다. 아바단 정유공장은 정유능력이 60만b/d에 달하는 거대한 시설인데 Aga Jari의 천연가스를 LPG로

〈표-9〉 이란의 石油收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 石油收入   |      | 石油收入   |
|------|--------|------|--------|
| 1965 | 514    | 1977 | 21,210 |
| 1966 | 608    | 1978 | 19,300 |
| 1967 | 752    | 1979 | 20,500 |
| 1968 | 853    | 1980 | 13,286 |
| 1969 | 923    | 1981 | 12,053 |
| 1970 | 1,109  | 1982 | 19,233 |
| 1971 | 1,851  | 1983 | 19,225 |
| 1972 | 2,396  | 1984 | 12,255 |
| 1973 | 4,399  | 1985 | 13,115 |
| 1974 | 17,822 | 1986 | 6,600  |
| 1975 | 18,433 | 1987 | 9,500  |
| 1976 | 20,243 |      |        |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와 EIU estimates

〈표-8〉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추이

(단위 : 천B/D)

|      | 원유 · 액화가스 | 석유제품 | 計     |
|------|-----------|------|-------|
| 1965 | ...       | ...  | 1,677 |
| 1970 | ...       | ...  | 3,519 |
| 1975 | ...       | ...  | 5,532 |
| 1980 | ...       | ...  | 952   |
| 1981 | 715       | 94   | 809   |
| 1982 | 1,623     | 95   | 1,718 |
| 1983 | 1,719     | 97   | 1,816 |
| 1984 | 1,522     | 57   | 1,579 |
| 1985 | 1,568     | 39   | 1,607 |
| 1986 | ...       | ...  | 1,464 |

〈資料〉 OPEC

전환하는 4만8천b/d 규모의 가스공장이 있는 Mah Shahr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아바단 정유공장은 1980년과 82년 사이 이라크의 집중공격으로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아바단 정유공장이 파괴되고 난 이후 13만b/d 규모의 테헤란 정유공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의 안정된 국내공급을 위해 Aden 정유공장의 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외에도 4만b/d 규모의 Shiraz, Tabriz(8만b/d), Esfaha(10만b/d), Kermanshah(2만b/d)와 Lavan(2만b/d) 등의 정유공장이 있다. Esfaha와 Tabriz의 정유공장이 이라크의 폭격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OPEC 국가중에서 최대의 석유제품 소비를 하고 있으며, 1987년 20만b/d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였다.

#### 〈천연가스〉

이란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자원이 부존하고 있으며, 그 매장량은 1987년말 현재 489조ft<sup>3</sup>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소련 다음가는 세계 제2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이란의 천연가스 개발은 1966년 이란이 소련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소련이 아리아메르 철강공장 및 Arak산업기계공장을 건설해주는 댓가로 이란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란 남부의 Bib Boland 가스유전에서 소련국경의 Astara에 이르는 총연장 1,104km의 IGAT(Iranian Gas Trunk) Line이 1970년 완공되었다. IGAT Line을 통한 대소련 천연가스 수출은 1970년 25.3억ft<sup>3</sup>에 불과했으나, 1974년에는 1970년의 13배에 가까운 320.9억ft<sup>3</sup>으로 증가하여 귀중한 외화수입원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1980/81년에 와서 가격문제로 공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재개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1980년대 가스생산 감소, 가스가격 하락, 대소련 수출중단등으로 난관에 봉착하자 이란은 또 다른 IGAT Line 2를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소비를 증가시켰다. 국내 발전에 가스사용이 늘어나서 1984/85년에는 총발전량의 20% 이상이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주요도시와 공업단지에 IGAT Line의 지선을 통하여 가스공급을 늘리고 있다.

### 4. 財政과 金融

#### (1) 재정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20일로 끝나는 회계년도를 가진 이란의 예산은 계획예산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편성하며 Majlis에 의해 승인을 받는다. 이란 재정의 특색은 ①정부세입중 석유수입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②대이라크 전쟁 이후 재정체제는 전쟁수행의 필요와 긴급상황에 맞게 개편되어 전쟁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 경상지출과 개발지출이 결정되고 있으며, ③재정적자가 크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71년 테헤란협정에 의한 석유가격 인상과 1973년 석유파동을 배경으로 석유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규모도 계속 팽창되어 왔다.

혁명 첫째인 1979/80년 예산은 전년의 약 2분의 1 수준인 340억달러였고, 1980/81년에는 65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여 400억달러의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석유수입 감소로 재정적자는 120억달러에 달했다. 1981/82년에는 440억달러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 예산이 승인될 경우 인플레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370억달러로 축소 조정되었다. 1982/83년에는 39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Majlis에 제출되었는데, 정부지출의 우선권은 남부지방의 전쟁피해복구사업과 석유의존도와 상품수입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위해 농업과 공업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어졌다.

1982년 10월 18억2천만달러의 전쟁비용과 복구비용, 12억달러의 정부경상지출, 나머지는 전력,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일 48억5,600만달러의 추가예산이 승인되었다. 1983/84년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액된 446억달러의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직접 전쟁비용은 40억달러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31%가 전쟁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개발지출은 152억달러에 그쳤다. 1985/86년에는 재정적자의 25% 감축을 목표로 420억달러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30.6%가 전쟁관련비용) Majlis에 의해 383억달러로 삭감되었다. 1986/87년에는 전년에 비해 국방비만 크게 증액되고 타부분은 감축된 506억달러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예상과는달리 531억달러로 증액되었고, 증액분의 대부분을 국방비와 철강공장, 핵발전소건설이 차지하였다. 1987/88년에는 555억달러의 예산안이 승인되었는데, 경상지출에 417억달러(이중 24%는 전쟁관련비용), 경

재개발에는 98억달러가 책정되었다. 전쟁관련비용은 60억달러로 책정되었으나, Majlis는 16억달러의 개발예산 전용등을 통해 32억달러를 추가지원하였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실제 전쟁비용지출은 예산액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쟁관련비용의 증가와 석유수입의 감소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80년 이후 계속 늘어나 1985년까지의 재정적자 누계는 380억달러에 달하였고 1988년의 재정적자는 13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물가상승은 이란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식량등 생활필수품이 절대 부족하고 생산성 증가를 고려치 않은 임금인상정책과 엄격한 수입규제로 이란은 오랫동안 극심한 인플레이에 시달리게 되었다. IMF 통계에 따르면 1982년 1/4 분기의 소비자가지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20.4% 상승한 294.9(1975 = 100)로 이란정부의 공식통계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0/81년 32.5%에서 1983/84년 17.7%, 1984/85년 7.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통계에는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생활필수품가격 보조금(1984/85년 12억5천만달러)과 암시장의 높은가격 수준과 전국도심지의 주택임대료의 폭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1990년대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내지 50%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금융

1979년 6월 모든은행과 보험이 국유화되었고, 1984년 3월 22일부로 회교은행제도의 시행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연 14%였던 은행대부이자 4%의 수수료로 대체되었고, 최저 7내지 8.5%였던 예금이자 3%의 배당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주로 단기·중기자금인 총 민간예금의 10% 이상이 이슬람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432억달러에 달하는 장기저축도 만기가되면 이슬람법이 적용된다. 물론 이란 경제전반에 걸친 침체현상의 영향도 컸겠지만, 모든 은행용자에 실제적으로 이슬람법이 적용되었던 1985년에는 금융기관 자산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1980년 3월 22개의 중소상업은행들이 2개의 큰 은행(Bank Tijarat와 Bank Mellat)으로 통합되었다. 오늘날 이란에는 5개의 상업은행(Bank Melli, Bank Saderat, Bank Sepah, Bank Tijarat, Bank

Mellat)이 영업중이다. 1985년 현재 이란에는 6,695개의 은행점포가 있으며, 1,663개가 테헤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고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 따라서 최근에는 용자와 외환을 취급하는 비공식 금융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중소상인(Bazaar)들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외환업무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Bank Mellat가 대외적으로 이란의 대표은행이다. 이 은행의 국내업무에는 이슬람법이 엄격히 적용되나 외환거래에는 회교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국제금융거래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 5. 貿易과 國際收支

이란의 무역수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초까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85년에는 석유수출량증가와 수입규제 강화로 무역수지는 잠시 흑자를 보였으나 86년도 이후 유가폭락으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10>은 이러한 무역수지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란의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석유제품이다. 1985년 석유수출이 전체수출의 98%를 차지하였으나, 86년도 유가폭락 이후 비석유제품 수출이 1985년 2억6,900만 달러에서 1986년 4억달러, 1987년 10억달러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에 있어서 석유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비석유수출품으로는 과일, 카페인, 가죽, 캐비어 등 전통적 수출품목과 니트웨어, 섬유, 옷감, 금속광물,

<표-10> 이란의 국제무역

(단위 : 백만달러)

|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
| 수출(FOB) | 19,508  | 12,527  | 13,384  | 7,000  | 11,900  |
| 원유      | 18,771  | 11,839  | 12,704  | 6,600  | 10,900  |
| 석유제품    | 454     | 415     | 411     | ...    | ...     |
| 기타      | 283     | 273     | 269     | 400    | 1,000   |
| 수입(CIF) | -18,327 | -14,840 | -11,600 | -9,900 | -10,000 |
| 무역수지    | 1,181   | -2,313  | 1,784   | -2,900 | -1,900  |

<註> IFS의 rial수치를 공식환율로 환산한 수치임.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표-11〉 석유와 가스 이외의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 '80/81 | '81/82 | '82/83 | '83/84 | '84/85 |
|---------------|--------|--------|--------|--------|--------|
| 농업 및 전통상품     | 601.7  | 321.3  | 255.3  | 318.1  | 295.0  |
| 카 페 트         | 425.1  | 149.4  | 67.0   | 88.9   | 89.8   |
| 면             | 5.3    | ...    | ...    | ...    | ...    |
| 과 일           | 61.9   | 57.4   | 78.8   | 125.5  | 79.8   |
| 가 죽           | 49.5   | 53.4   | 40.6   | 34.6   | 48.7   |
| 캐 비 어         | 15.3   | 15.3   | 18.9   | 19.0   | 21.9   |
| c a s i n g s | 24.1   | 20.3   | 17.6   | 13.6   | 11.4   |
| 트라카칸드고무       | 0.4    | 1.1    | 2.3    | 2.8    | 3.1    |
| 커 민           | 1.6    | 0.4    | 4.3    | 3.6    | 1.2    |
| 기 타           | 18.5   | 23.0   | 25.8   | 30.1   | 39.1   |
| 광 물           | 19.5   | 5.0    | 7.1    | 12.5   | 38.8   |
| 공 산 품         | 24.0   | 13.2   | 21.3   | 26.0   | 27.3   |
| 세 제           | ...    | ...    | 0.4    | 0.1    | 0.8    |
| 무기화학제품        | 0.2    | ...    | 0.1    | 0.1    | 1.4    |
| 신 발           | 2.8    | 0.5    | 1.7    | 2.8    | 2.6    |
| 과 자 류         | 2.7    | 0.6    | -      | 1.3    | 0.3    |
| 기성복과 옷감       | 10.5   | 8.9    | 9.6    | 10.0   | 14.3   |
| 건축자재          | 0.1    | ...    | 3.4    | 3.1    | 1.1    |
| 자동차           | 0.3    | 0.3    | 1.5    | 1.4    | 0.2    |
| 기 타           | 7.4    | 2.9    | 4.6    | 7.2    | 6.6    |
| 計             | 645.2  | 339.5  | 283.7  | 356.6  | 361.1  |

〈資料〉 Central Bank of Iran, Foreign Trade Statistics of Iran.

의약품, 화학제품, 비누, 세척제 신발류와 가공식품과 자동차같은 공산품이 있다. 1970년대 수출부문에 있어 카페트와 쌍벽을 이루던 면화는 주재배지인 Turkman 지역의 정치, 사회적 불안때문에 1980년 이후 생산과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고, 공산품 수출은 최근에 와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1978/79년 141억달러였고 수입이 회교혁명이후 크게 감소하여 1979/80년 9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980/81년에는 對이라크전쟁, 美國과 EC와 일본의 대이란 무역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3.5%나 증가하였다. 1983년 석유수입증대로 수입은 183억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외화부족에 따른 수입억제로 수입은 계속 감소추세이다.

회교혁명이후 수입상품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

다. 1979년 이전에 총수입의 30%를 차지하던 자본재 수입이 1982년 15%로 감소하였고, 소비재수입(특히 사치품)이 크게 감소하였고 1980년에는 정부의 농업발전촉진에도 불구하고 식량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란의 주수입품은 식료품, 농업용원자재, 기계, 발전설비, 군수품, 화학제품과 의약품등이다. 또한 1980년 對이라크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군수품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종류의 수입은 공식통계에 독립적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더우기 무기수입은 공식자료에 기록조차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1985년도의 경우 총수입의 30~40%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된다.

회교혁명 이후 美國, EC등의 금수조치로 말미암아 이란은 새로운 무역파트너를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OECD 와의 교역량은 감소한 반면, 회교혁명전 총수입의 8%를 차지하던 제3세계와의 교역량은 21%로 증가하였고 동구와의 바터제에 의한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OECD와의 교역량이 80%에서 65% 정도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이란의 최대무역파트너임에 틀림없다.

西獨, 美國, 英國등이 이란의 주요 무역파트너였으나 美대사관사건이후 미국 대신에 日本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980년대초에는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1983년 이후에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수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4년 Shah가 맺은 파키스탄, 터어키, 이란과의 지역협력개발협정이 1984년에 재개됨에 따라 혁명이전 1억달러에도 못미치던 3국간의 교역량이 30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터어키가 새로운 무역파트너로 등장했다.

회교혁명 이후 모든 무역업무는 국유화되었고 실질 무역업무는 정부관할하의 구매유통공사(Purchasing & Distribution Company)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 공사는 화학제품, 전기용품, 전자 및 의류기기, 식품가공, 각종 경공업품, 기계 및 부속품, 금속과 플라스틱제품, 섬유, 공구와 하드웨어, 나무와 종이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12개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품과 수입품의 양과 질을 검사하고 각종 무역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회사들의 주목적은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고 중간상인을 배제하여 무역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모든 무역업무가 국유화되긴 하였으나, 이런 국유화는 비이슬람적이라는 이유로 보수무슬람뿐만 아니라 기존

〈표-12〉 이란의 주요 수입

(단위 : 백만달러)

|                 | 1980/81 | 1981/82 | 1982/83 | 1983/84 | 1984/85 |
|-----------------|---------|---------|---------|---------|---------|
| 식 물 과 산 동 물     | 1,541   | 2,161   | 2,164   | 2,368   | 2,070   |
| 음 료 와 담 배       | 46      | 88      | 7       | 90      | 82      |
| 의 약 품 과 화 학 제 품 | 1,521   | 2,180   | 1,679   | 2,084   | 1,768   |
| 철 , 철 강 제 품     | 3,335   | 3,986   | 3,507   | 5,326   | 3,561   |
| 자 동 차 와 기 계     | 3,055   | 3,527   | 3,331   | 6,317   | 5,452   |
| 계               | 10,844  | 13,515  | 11,845  | 18,103  | 14,494  |

〈資料〉 Foreign Trade Statistics of Iran

Bazaar의 반발도 거세고 수입과 유통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서 수출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의 경상수지 추이는 석유수출수입의 추이를 따라 움직인다. IMF 통계에 따르면 1982년 석유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57억달러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군수품과 식량수입이 증가된 반면 석유수출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1986년에는 유가폭락으로 40~5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임에 따라 불필요한 수입과 해외여행이 심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 6. 사회간접자본

이란은 과거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과 확충에 크게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전쟁으로 인해 크게 낙후되어 경제발전엔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 (1) 전력

전쟁, 발전소의 관리소홀, 건설중인 발전소의 완공지연등으로 이란은 전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력부문의 문제점으로 특히 공업부문의 피해가 극심

〈표-13〉 IMF 국제수지

(단위 : 백만달러)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
| 상 품 수 출 ( F O B ) | 12,338  | 11,831  | 20,452  | 21,507  | 17,087  |
| 상 품 수 입 ( F O B ) | -10,888 | -13,138 | -12,552 | -18,027 | -14,729 |
| 무 역 수 지           | 1,450   | -1,307  | 7,900   | 3,480   | 2,358   |
| 기타 상품과 서비스 : 수 입  | 1,735   | 1,451   | 1,121   | 1,335   | 1,069   |
| 기타 상품과 서비스 : 지 출  | -5,621  | -3,590  | -3,288  | -4,457  | -3,841  |
| 이 전               | -2      | -       | -       | -       | -       |
| 경 상 수 지           | -2,438  | -3,446  | 5,733   | 358     | -414    |
| 직접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    | -       | -       | -       | -       | -       |
| 기 타 장 기 자 본       | -5,261  | 289     | -1,866  | -271    | -421    |
| 기 타 단 기 자 본       | -2,977  | 1,152   | 19      | -2,203  | -2,397  |
| 자 본 수 지           | -8,238  | 1,441   | -1,647  | -2,474  | -2,818  |
| 누 락 과 오 류         | 828     | 1,633   | 980     | 860     | -904    |
| 대 체 계 정           | 5,587   | -8,814  | -912    | -21     | -26     |
| 종합수지( -는 증가표시)    | 4,261   | 9,185   | -3,954  | 1,277   | 4,161   |

〈資料〉 IMF

하다. 1970/71년 68억Kwh였던 발전량은 1974/75년 140억Kwh로 또한 1985/86년 390억Kwh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발전량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것이다. 총발전량중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71년 63%에서 1980년대 중반 90% 이상으로 제고되었다. 발전용량도 1973/74년 2,805Mw에서 1985/86년 12,369Mw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발전량을 발전유형별로 분류해 볼때 1974/75년 그 비중이 각각 59%, 31%, 6%, 4%였던 석유, 수력, 가스, 디젤이

1984/85년 53.7%, 16.9%, 25.8%, 3.7%로 변화하여 주종이 화력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가스자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7년 5월 이란은 아르헨티나와 원자력발전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세부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테헤란대학에 세워질 원자력대학 연구소에 550만달러 상당의 원자로와 우라늄을 공급할 것으로 추측되고 또한 Bushehr에 1,293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1차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14〉 이란의 발전량

(단위 : 千mwh)

|      | 1980/81 | 1981/82 | 1982/83 | 1983/84 | 1984/85 | 1985/86 |
|------|---------|---------|---------|---------|---------|---------|
| 공공부문 | 19,880  | 22,406  | 26,323  | 30,509  | 34,094  | 36,720  |
| 수력   | 5,619   | 6,229   | 6,447   | 6,203   | 5,750   | -       |
| 석유   | 8,197   | 9,714   | 12,562  | 16,296  | 18,309  | -       |
| 가스   | 5,088   | 5,343   | 6,141   | 6,826   | 8,780   | -       |
| 디젤   | 976     | 1,120   | 1,173   | 1,184   | 1,255   | -       |
| 민간부문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 計    | 22,380  | 24,906  | 28,823  | 33,009  | 36,594  | -       |

〈資料〉 Ministry of Energy.

(2) 교통

가. 도로

철도의 정비가 지연되고 도시사이의 거리가 1,000km 이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 육상수송의 중심은 버스, 트럭등의 도로운송이 차지하여 왔기 때문에 도로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다.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1983년 15,000km의 도로가 완전포장되었고, 15,000km의 자갈길과 14,200km의 비포장도로가 있으며, 군사도로, 삼림도로등을 포함한 총도로 연장은 55,000km에 달하고 있다. Takistan-Tabriz-Bazargan의 고속도로, Teheran-Karaj 고속도로, Teheran-Amol 고속도로등이 1970년대에 건설되었으나, 회교혁명과 전쟁으로 크게 황폐되었다. 1983년 현재 이란에는 100만대의 승용차, 25만대의 트럭과 버스가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차량 신규등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항만에서 내륙시장으로 상품을 운반할 트럭의 부족으로 이란은 큰 고통

을 받고 있다.

나. 철도

중앙부에 펼쳐진 사막과 서남으로 뻗어있는 험준한 산맥 때문에 철도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이란국영철도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란의 철도는 4,567km(간선)의 총연장을 가지고 있으며 1987년까지 1,300km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란의 철도는 1981/82년 429만명의 여객과 570만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주요 간선철도는 남부의 Bandar Khomeini에서 테헤란을 거쳐 카스피해안의 Bandar Turkman에 이르는 총연장 1,400km의 Trans Iranian line이 있으며 이 철도는 Khoranshahr와 Shahpur화학공장과도 지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테헤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4개노선에 총연장 143km의 지하철공사가 1978년에 시작되었으나 회교혁명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다. 항만

걸프만안에는 이란최대의 항구인 Khoramshahr를 비롯한 Bandar Khomeini(구명 : Bandar Shahpur), Bandar Abbas와 수출원유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Kharg 섬등 중요한 항구들이 있으며 對이라크전쟁 이후 이란의 주요 항구들이 봉쇄되거나 파괴되어서 Bandar Abbas, Bushir, Lingeh, Chah Bahar등지의 소규모항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Bandar Abbas항의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며, 걸프만의 8개항구(Bandar Khomeini, Shahid Rajai와 6개의 작은 항구)의 확장공사에 240억리알을 투자하고 있다. 카스피해안의 Bandar Pahlavi와 Bandar Turkman의 현대화가 추진중이며, Farahabad에 새로운 항구의 건설이 고려되고 있다.

라. 공항

이란에는 테헤란과 Abadan에 세계적 규모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1979년 중단되었던 테헤란 남부 40km지점에 세워질 신국제공항 건설공사가 1984년말 재개되었다. 1984년 7월 Isfahan에 국제공항이 건설되어 1986년 3월부터 국제선이 취항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1월 Kerman공항의 새활주로가 완공되었고 공항청사의 확장공사를 87년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슬람혁명 이후 국내선취항을 위한 6개이 소규모 공항이 새로이 건설되었다.

1963년 창설된 이란국영항공(Iranian National Airline)이 국내 15개 도시와 걸프지역, 극동, 유럽의 주요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이란항공은 1985년 5억4천명/km의 승객과 36,000ton/km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회교혁명과 對이라크전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항공운송이 1984년 동안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1985년 봄의 격렬한 공중전 이후 이란에 취항하는 모든 국제선의 운항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마. 통신

이란은 1972년 기본통신시설을 완비하고 앙카라, 테헤란, 카라치를 잇는 마이크로웨이브망을 갖춘 이래 통신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자동전화교환시설이 설치되었고, 1980년 122만7천대의 전화가 보급되었다. 이란에는 관영 라디오 TV network이 있고 1984년 천만대의 라디오와 210만대의 TV가 보급되어 있다.

이란은 中東지역에서 가장 먼저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한 나라중의 하나이며, 일찍이 1949년 제1차 7개년계획에 착수한 이래 회교혁명전까지 제2차 7개년계획(1956~1963),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3~1968),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8~1973),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3~78)을 추진한 바 있다.

이란의 경제개발계획은 제2차계획까지는 정부재정부문의 정부투자의 배분에 그친 부분계획에 불과하였으나, 제4차계획부터 비로소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종합개발계획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개발계획상의 일관된 기본목표는 유한의 석유자원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석유고갈후의 이란경제를 주도할 산업, 특히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공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운수, 통신, 수자원개발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아울러 주택건설등의 사회복지의 향상과 사회개발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투자소요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석유收入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며, 그 비중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78년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8~83)이 수립되었으나 회교혁명으로 중단되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식량의 자급과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의 축소를 통한 경제적 독립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문화교육시설의 확충, 빈민구제, 농업부문의 개발에 중점을 둔 회교혁명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투자재원조달의 방법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현실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배분면에 있어서도 강력한 농업개발의 의지와는 반대로 공업에 비해 너무 적은 투자가 배분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총투자규모가 10% 정도 축소되고, 총투자중 농업의 비중이 16.7%로 인상된 반면 비석유관련 공업의 비중이 50%로 축소조정되어 1986년 1월 Majlis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對이라크전쟁과 석유收入의 감소등의 결과에 기인한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이란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 계획안이 차질없이 실행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

7. 경제개발계획